

# 편견·빈곤에 무너진 '플레랑스의 나라'

(tolerance: 관용)

2부- 해외 다문화 현장을 가다

① 이민자 정책 흔들리는 프랑스

파리=글·사진 최경호기자

지난 3일 오전 11시(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의 외곽도시인 '클리시 수 부와'(Clichy-sous-Bois)는 밤새 내린 눈에 묻혀 고요했다. 평일 오전인 탓인지 허름한 주택가와 거리에는 한산함이 느껴졌다.

5년 전 발생한 '방리유 소요 사태'의 진원지로 군중집회가 열렸고, 방화가 자행됐던 거리나 건물에서도 적막감이 감돌았다. 당시 시위대의 방화로 불에 탄 '아르망 데스멧' 체육관 자리는 2층짜리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하얀 눈에 파묻힌 새 체육관의 모습에서는 2005년 당시의 참혹함을 느낄 수 없었다. 전반적인 도시의 외관에선 당시 사건이 이미 흘러간 '과거'가 된 듯했다.

하지만 2005년 '방리유 사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주민 대부분이 뉘그러는 듯 대답을 회피했다. 취재진과 대면한 주민들의 표정에선 침통함이 묻어났다. 다들 '그 일 만은 묻지마라'는 식으로 손사래를 쳤다. 심지어 일부 청년들은 취재진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했다.

시청이나 주민·청소년센터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평온한 도시의 겉모습과는 달리, 주민 모두의 마음 속에는 5년 전의 기억이 여전히 '악몽'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소요의 진원지인 '빅토르 위고'(Victor Hugo) 아파트의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퀴뱅(Cubain·47)씨는 "5년 전 감전으로 사망한 아이 중 하나가 가게 앞으로 쓴살같이 뛰어들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당시의 급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퀴뱅씨는 "당시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날 이후 동네 젊은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며 "소요 기간 내내 가게 앞 주차장에서 불에 탄 승용차를 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될 만큼 끔찍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05년 10월 27일 이주민들에 대한 오랜 차별과 빈곤 문제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시작한 소요의 진원지다. 이 시위는 파리 근교에서 시작돼 플루즈, 렌즈, 릴 등 지방 대도시로 빠르게 확산됐다.

전국 규모로 불어난 시위로 하루 최고 1000대 이상의 차량이 불타고, 학교와 관공

## 악몽 각인된 5년전 '방리유 사태' 지금도 ing "포용 없인 평화로운 공존 있을 수 없다" 교훈



'클리시 수 부와' 시청 옆 로베르 드와즈노 중학교 교문 앞에 설치된 표시석. 이 표시석은 2005년 '방리유 소요사태' 때 사망한 이 학교 학생 부나 트라오레(15)와 지에드 벤나(17)를 기리기 위해 설치됐다.

서 등 공공 건물에 대한 방화가 잇따랐다. 당시 직접적인 화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만 2억유로(한화 3080억여원)에 달한다.

급기야 프랑스 정부는 사태 발생 11일 후인 11월 7일 1955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그동안 프랑스가 고수해온 '동화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순간이었다.

전문가들은 당시 사태가 단순한 폭력이나 방화의 차원을 넘어서 서구 선진국들의 이민자 정책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민자들을 포용하지 않고서는 결코 평화로운 '공존'도 있을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안겨준 사건이었다는 분석이다.

'방리유 사태'는 5년 지난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2005년 이후로도 프랑스 곳곳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나 경찰의 강경 진압 등에 따른 크고 작은 소요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7일에도 '클리시 수 부와' 도시 곳곳에선 '5주년 추모제'가 열렸다. 2005년 경찰의 검문을 피하려다 사망한 지에드 부에나(17)군과 부나 트라오레(15)군을 추모

하기 위한 행사였다.

이날 추모제는 5년 전의 방화나 폭력 대신, 침묵과 추모의 분위기 속에 엄숙하게 치러졌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5년 전 전국의 이주민들이 분노를 표출한 계기를 제공한 두 청년의 죽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만큼은 잊지 않았다.

또 지난달 27일 '클리시 수 부와' 시청 주관으로 열린 '우수 학생 시상식의 밤' 행사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아프리카와 아랍계 이주민 2~3세 500여명이 참석했다. 모두 '방리유 사태'를 직접·간접적으로 체험한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당시의 사태를 '잊고 싶은 과거'라고 표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델릴라(Delillah·여·18)씨는 "이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태동한 빈곤과 차별 문제에 대해 해결을 촉구한 것 뿐인데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사태가 악화됐다"며 "2005년 이후 '악의 상징'처럼 돼 버린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민의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을 프랑스가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에 동화시키기 위한 '동화'(assimilation)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프랑스와 공화주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같은 '동화주의' 정책은 초기 이주민 정책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져오다 2005년 '방리유 사태'를 계기로 논쟁에 휘말렸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차별 철폐'와 '빈민층을 위한 고용촉진' 등의 정책을 제시하며 문제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폭력행위'에 대한 강경 대처와 '이민통제 강화조치' 등을 병행함으로써 또다른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 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의 외곽도시인 '클리시 수 부와'에서 열린 '우수 학생 시상식의 밤'. 2005년 '방리유 소요 사태'의 진원지이자 이주민들이 밀집한 이 곳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 1학년생에게 매년 연말 시청 주관으로 시상식이 열린다.

## "방리유 사태는 폭력 아닌 저항...평등사회 위해 노력"

'아세 르프' 메슈마슈 회장

"프랑스 정부가 이민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평등권을 줘야 한다. 현재처럼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빈곤이 존재하는 한 2005년의 '방리유 사태'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프랑스의 시민단체 '아세 르프'(ACLEFEU)의 메슈마슈(Meschmache·39) 회장은 "2005년의 '방리유 사건'은 단순한 '소요'나 '폭력'사태가 아닌, 이주민들의 '사회적 저항'(revolte sociale)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년 전 '저항 운동'은 일부 언론에서 말하듯 '폭력을 위한 폭력'이나 '부수기 위해 부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정부가 '클리시 수 부와'와 같은 대도시 외곽 빈민 도시들을 방치해둔 과정에서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오랜 무관심 속에 이주민들이 밀집한 대도시 외곽지역은 일 자리는 물론,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면에서 소외됐다"며 "프랑스 법원의 상징인 저울의 '두 추'처럼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이민자와 빈곤층을 감안한 법



시민단체 '아세 르프'의 메슈마슈 회장이 2005년 방리유 소요 사태의 사진을 기리키며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단체는 5년 전 젊은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태도, 즉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 출마자들에게 대한 협약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프랑스의 이민자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아세 르프(ACLEFEU)=

불어로 '방화'는 이제 '그만'이라는 뜻으로, '자유·평등·박애의 통합을 위한 단체연합'(Association Collectif Liberté-Egalité-Fraternité-ensemble unis)의 약칭이다. 2005년 '방리유 사태' 기간에 '클리시 수 부와'의 교수와 변호사, 시민운동가 등의 주도로 탄생했다.

**국민은 누구내!**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로 8자리 이상!

회원가입은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I-PIN)!

전화나 메신저로 금전 요구시 주의!

고객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

서비스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

고객정보는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사용!

기업을 받으세요!

# 개인정보보호!

#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약속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기업상담 [국번없이 118] e콜센터 @118

행정안전부 www.mopas.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